

 		<h1>보도자료</h1> <p>2020. 2. 24.(월) 배포</p>
보도일	<p>2020. 2. 25.(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2. 24.(월) 12:00 이후 보도 가능</p>	
담당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자
		과 장 최보영 (☎ 044-203-6799) 사무관 권지은 (☎ 044-203-6798) 교육연구사 조수원 (☎ 044-203-6794)

신남방, 신북방 지역 한국어교육 지원 본격 확대

- ◆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작년보다 약 2배 상향된 126억 원 투자
- ◆ 한국어 수요가 높은 신남방, 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투자
- ◆ 2022년까지 한국어 채택 40국 2,000교,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 양성 10개국, 현지인 교원 방한연수 250명으로 확대 목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학령기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국가 간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첫 걸음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 1999년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30개국 1,635개 학교에서 14만 5천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 중(2019년 기준)이다.
- 2020년은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 66억 원에 비해 **90% 상향된 126억 원**을 투자하며, 특히 한국어 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한국어 교육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교과서 개발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과테말라, 라트비아 등 8개국*** 및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4개국**** 등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 과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아프간, 체코, 터키
 - ** (2020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2019년~) 투르크메니스탄
 - 또한, 한국어 교과의 학년별·수준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현지 국가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지원하여 시범운영 및 신규 채택 국가의 체계적인 한국어반 운영을 도모한다.

◇ 한국어 교육 전문성 제고

- 2022년까지 **한국어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의 **방한 몰입 연수**를 250명까지 **확대**하고, 10개 현지 대학 내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작년 대비 140% 증가한 132명의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를 파견(이 중 70%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체재비도 20% 상향**하였다.
 - *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현지인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 한국어 교원 150명에 대해 2주간의 방한 몰입연수를 신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신북방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며, 한국어 교육 학회와 연계하여 신남방, 신북방 지역별 50명씩 현지 통합연수도 병행한다.

-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을 갖춘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을 위해 국내와 현지 대학을 연계하여 올해는 신남방 지역 4개, 신북방 지역 2개 현지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학위과정**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 일부 국가는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어교원 양성 후 초·중등학교 배치 추진
 -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GKS)을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 전공자 및 한국어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취득을 지원한다.

※ 2020년 대학원 GKS사업 석·박사과정 약 150명(예상) 선발, 이 중 ‘한국어교육’ 유형 신설하여 30명 별도 선발

◇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해외 한국어교육의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신설**(베트남 하노이, 말레이시아 등)하고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폭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고,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며, 말하기 평가도 신규 도입하여 평가체계 완성도를 높인다.

* 2019년 기준 37.5만 명인 응시자 수가 2022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 예상

- 그간 추진해온 해외 한국어 교육자·교육행정가 초청 연수,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0년 추진 계획(안) 1부
 2. 2019년 기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1부



붙임1 2020년 추진 계획(안)

비전 한국어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

추진 방향 현지 한국어교육 여건에 따른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지원 확대
관계부처(문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한국어교육 시너지 창출

구분	'18	'20	⇒	'22
	한국어반 확대	1,495교	1,764교	
교원 확보	한국인교원 파견	58명	132명	200명
	현지 교원(강사) 양성과정 개설	1개('19기준)	6개	⇒ 10개
	현지교원 방한 연수	신규	150명	250명
TOPIK 응시자 수	33만 명	45만 명	⇒	IBT 전환 시 70만 명

한국어교육 기획 확대	①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② 표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개발 지원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	③ 교원 파견 확대 및 처우 개선
	④ 현지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 체계 구축
	⑤ 현지 한국어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한국어교육 인프라 강화	⑥ 현지 교육제도 연구
	⑦ 한국어교육 거점 확충
	⑧ 한국어능력시험 개편
한국어교육 추진체계 구축	⑨ 한국어교육 저변 확대
	⑩ 한국어 협력 기반 및 협조 체계 구축
	⑪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붙임2 2019년 기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 전 체 : 30개국 1,635교 145,309명
- 신남방 : 6개국 243교 48,575명
 - ※ 3개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20년부터 시범운영 시작
- 신북방 : 9개국 208교 27,147명

('19.12.31. 기준)

지역	국가별	2017년도(27개국)		2018년도(28개국)		2019년도(30개국)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전 체		1,408	123,988	1,495	136,866	1,635	145,309
신남방	태 국	99	32,931	119	37,401	138	38,109
	인도네시아	41	4,249	39	4,677	41	5,141
	베트남	7	1,157	7	1,014	14	1,865
	필리핀	-	-	10	591	26	2,044
	인도	-	-	-	-	14	493
	말레이시아	10	621	10	891	10	923
신남방 계		157	38,958	185	44,574	243	48,575
신북방	몽골	24	4,154	24	4,127	28	4,129
	키르기스스탄	54	5,185	61	5,850	64	5,104
	카자흐스탄	13	518	13	496	21	799
	우즈베키스탄	28	7,627	37	10,470	37	10,055
	타지키스탄	2	671	2	221	2	269
	러시아	42	5,165	44	5,541	42	5,623
	우크라이나	5	499	8	821	11	1,031
	벨라루스	2	27	2	45	2	36
신북방 계		170	23,846	191	27,571	208	27,147